교육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배포 2026. 11. 18.(수) 즉시 보도시점 (인터넷) 2026. 11. 18.(수) 즉시
(지 면) 2026. 11. 18.(수) 즉시

2027 수능 강화된 부정행위 예방조치에 따른 수험생 유의사항 추가 안내

- 개인 지참 필기구는 '**흑색 연필**'만 **허용**,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 샤프심**은 **휴대 금지**,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
- 원활한 검사 위해 단추 없는 복장 권장, 장신구 착용 자제 당부
- 안경, 휴대물품 등 검사 강화,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교육부는 11월 19일(목) 실시되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강화된 시험장 점검 절차와 수험생 유의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하였다.

이번 조치는 최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수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 지참 필기구 휴대 금지 및 시험장 일괄 지급]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에 시험 중 휴대가 허용되었던 개인 지참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 4종을 휴대 가능 물품에서 제외한다.

< 휴대 가능 물품 변경 사항 >

구분		물품
휴대가능 물품 (필기구 관련)	기존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흑색 연필
	변경	△흑색 연필

이는 일반 필기구로 위장된 초소형 촬영·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험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이번에 개인 지참이 긴급히 금지되는 4종의 물품은 모두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하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르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개인적으로 준비한 해당 물품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면 된다.

수험생은 부득이하게 해당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온 경우 시험 시작 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가방 속에 넣어 교실 밖에 보관해야 한다.

해당 물품을 시험 중 단순 소지하다 적발되는 경우 압수 처리하고, 부정행위 활용 여부를 면밀히 점검한다. 점검 결과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대한 부정행위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단추 없는 복장 권장 등 수험생 협조사항 안내]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내 소지품과 복장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1교시 시작 전 모든 수험생의 안경을 내려놓도록 하여 스마트안경 여부를 전수 점검하고, 이후에도 매 교시 안경 착용 상태를 확인한다. 또한, 휴대물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3교시 시작 전에도 모든 수험생의 휴대물품을 다시 점검한다.

초소형 카메라 등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옷깃과 소매, 단추 등도 확인하며, 단추에는 스티커를 부착한다.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금속탐지기를 활용한 추가 검사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수험생은 원활한 검사 진행을 위해 가급적 단추가 없는 복장을 착용하고, 목걸이·반지·모자 등 불필요한 장신구 착용을 자제할 것을 권장한다.

또한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경 및 소지품 확인, 소매·옷깃 점검 등 강화된 검사 절차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변경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개별 문자로 발송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변경된 내용을 시도교육청과 각 시험장에 신속히 안내하고, 수험생들이 변경된 기준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강화된 점검은 정직하게 시험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의 노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변경된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시험 당일 감독관의 안내와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대학정책관 대입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진용 (044-203-6885)
		담당자	행정사무관	이준혁 (044-203-6890)
			교육연구사	염동렬 (044-203-689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